

참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2012

아름다운가게
나눔보고서



아름다운가게



참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펴낸날 2013년 6월 1일
발행인 홍명희
펴낸곳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기획 아름다운가게 홍보팀
디자인 디자인 브릭스
주소 133-847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 (용답동)
전화 1577-1113
팩스 02-730-0525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

〈참 아름다운 나눔이야기〉는 아름다운가게를 통한 변화,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나눔성과를 담은 아름다운가게 간행물로, 매년 상반기에 발행됩니다.



국내 나눔이야기

- 06 소외아동정서지원
- 08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 10 아동 환경교육

해외 나눔이야기

- 14 나마스페겐시스
- 16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 18 굿모닝베트남

기부자 이야기

- 22 데님아트 황인호 기부자
- 23 희망발전소 나눔콘서트
- 24 고운미소치과
- 25 동부여닝
- 26 놀라운가게

숫자로 보는 연간나눔

- 30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10년
- 31 2012년 나눔성과
- 33 나눔내역1 빈곤소외계층 지원
- 34 나눔내역2 공익활동 지원
- 35 나눔내역3 현물나눔
- 36 나눔내역4 공정무역, 국제개발, 긴급구호
- 37 나눔내역5 사회적기업 지원

아름다운가게 소식

- 38 주요 행사 소식
- 40 매장 이전 및 개점 소식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가게는 여러분의 기증,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약 31억 원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웃들의 이야기와 여러분과 같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기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노력으로 일궈낸 우리의 나눔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어린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멀리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지에서 기후변화와 가난 그리고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안정된 집과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이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 기증하고, 시간을 나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기부해주신 모든 활동들이 하나하나 차곡히 쌓여 큰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은 아름다운가게가 창립 된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특별했던 만큼, 누적 나눔액은 200억 원을 돌파했고 연간 기증량이 천만 점을 넘어서는 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눈에 띄는 한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LA에 해외 첫 매장을 개점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가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특별한 나눔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조금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홍명희

홍명희

희망으로 새하얀 나침, 나눔으로 여는 새해

제 10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국내 나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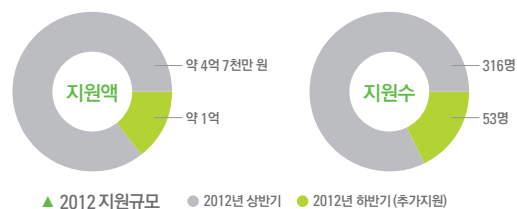
소외아동정서지원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아동 환경교육



소외아동정서지원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치료와 특기교육으로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신체학대나 아동유기 등은 감소하는 반면 '방임'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가게는 소외아동정서지원을 통해 빈곤, 가정 해체, 잘못된 양육방식 등의 환경 때문에 아동이 받아야 할 관심이나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살핌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마음에 병이 생긴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발달시기에 맞는 말과 행동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은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특기교육과 정서치료,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등을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정기수익나눔, 연 2회)'의 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나눔이야기



“댄스스포츠 국가대표가 되는 날까지 내 무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 내일의 댄싱퀸을 꿈꾸는 채은희 양(14세, 댄스스포츠 교육, 모자가정)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8년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시면서 얻게 된 빛으로 잠시 배웠던 댄스스포츠를 그만둬야 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다시 배우고 싶단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아름다운가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번다시는 하지 못할거라 생각했는데 시작하게 되니 꿈만 같았고, 오래 신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 결실로 많은 대회에서 입상도 하게 되었고요. 어렵게 시작한 만큼 자기관리도 열심히 해서 꼭 댄스스포츠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또, 엄마 혼자 생계를 꾸리시느라 가족끼리 외식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름다운가게에서 마련해준 가족나들이 덕분에 오랜만에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꿈의 골대를 향해서 세계적 선수들과 당당히 겨룰 거예요

- 스페인 축구리그 득점왕을 꿈꾸는 박정빈 군(14세, 축구 교육, 모자가정)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엄마가 저를 돌보셨는데 관절염 때문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베이비시터로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됐어요. 3년 전 축구감독님이 제 재능을 알아보시고 뽑아주셔서 축구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름다운가게의 특기교육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축구부 특기생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주전으로 발탁되었고, 부부장까지 승승장구 했구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올림픽대표 마크도 달고, 바르셀로나 프로팀에서 1군 주전으로 뛰고 말거예요. 스페인 리그 득점왕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칭찬을 먹고 춤추는 발레리나입니다

- 유니버설 발레단의 무용수를 꿈꾸는 이지나 양(16세, 발레 교육, 모자가정)

부모님의 이혼으로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가진 오빠와돌이 지내다 엄마와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와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오빠에게 매번 엄마의 관심을 뺏기게 되니 너무 화가 났고 엄마는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무렵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연히 발레를 배우게 되었어요. 무척 재미있었고 잘한다는 칭찬도 들었지만 돈이 많이 드는 발레를 배우는 건 꿈 꿀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알게 된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발레를 배우게 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또 언제나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엄마의 모습에 원망도 눈독도 녹아버렸구요.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나눔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외로움과 질병, 가난으로 고통 받는 독거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 수는 2000년 54만 명에서 지난해 119만 명으로 1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20.2%가 독거노인이며, 더욱이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중 78.9%가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극빈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소외감까지 혼자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매년 설날 일주일 전에 생필품과 쌀을 소외가정에 전달하고 설 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국 35개 지역 5,500가구에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나눔보따리를 전했습니다.



- 2012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매년 설날 1주일 전에 생필품과 쌀을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 나눔행사
- 전국적으로 4~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각 가정에 나눔보따리를 전달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자리
- 지원 가구수 5,500가구
- 실행지역 35개 지역 (서울, 인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남양주, 김포, 포천, 하남, 부산, 창원, 김해, 진주, 사천, 통영, 울산, 대구, 광주, 순천, 광양, 여수, 목포, 춘천, 원주, 대전, 천안, 논산, 청주, 제천, 익산, 군산, 전주, 제주, 정읍)
- 참여 자원봉사자 수 약 4천 명

※ 2012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기준

“
나눔보따리 수혜어르신 사연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넘었으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어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령으로 마땅한 일을 찾기도 어려운 어르신은 오늘도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두 번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신다고 합니다. - 구로구 가리봉동 신○동 어르신

외동딸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계신 최○례 어르신은 홀로 드셔야 하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찾아주는 이도, 함께 밥을 먹을 이도 없는 외로움에 몸도 마음도 아프시다고 합니다. - 강서구 등촌동 최○례 어르신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해 오셨으나, 여든을 넘기시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 동작구 노량진동 신○자 어르신

외아들을 잃은 93세 고령의 권○순 어르신은 심한 관절염으로 끼니를 챙기는 것은 물론 걷는 것조차 어려워 방에만 누워계신다고 합니다. - 강서구 등촌3동 권○순 어르신

미혼으로 가족도 왕래하는 친인척도 없는 임○천 어르신은 대부분 술과 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형편이라 최근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종로구 충신동 임○천 어르신

아동 환경교육

놀면서 실천하는 눈높이 환경교육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눈높이도 훌쩍 자랍니다.



어릴 때 배운 것들은 오래 기억되는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와 제일모직, 환경보전협회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흥미롭고 쉬운 생활 속 실천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이와 배움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만들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환경박사가 되었어요”
- 꿈꾸는 다락방의 재미만점 환경교육 이야기

재활용을 주제로 아동 눈높이에 맞춘 음악-미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방문하여 버려지는 물건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쓰이는 경험을 나누고, 자투리 천으로 현책을 리폼하였습니다. 폐품이 환경미술로 아름답게 변신하는 재미를 맛보고, 재활용악기를 만들어 직접 난타공연발표회를 가지는 등 신나는 환경배움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내 문화행사와 더불어 진행해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환경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생활 곳곳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입니다”
-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의 생활밀착 환경교육 이야기

동네를 탐험하며 환경문제를 깨닫고, 생활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개선을 꾀합니다. 환경강사님을 모시고 토론회 학습을 진행하며 지역 내 동아리,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구사랑의 메아리가 널리 퍼지게 합니다. 주말 활동이 절실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동네탐험 체험 활동을 선보여, 돌봄과 체험이 어우러지게 하였습니다. 생태계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햇빛, 바람, 흙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햇빛과 바람지도, 장바구니와 환경, 제철음식, 요리경연대회 등을 진행하여 많은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द ब्यूटिफुल लाईब्रेरी

बि.न.पा.-८, शेरा बजार, नयाँ बस्ती

OUR SUPPORT
ful Library
TODAY!



COMMUNITY, LAXMI TAMANG

해외 나눔이야기

나마스페겐지스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굿모닝베트남



나마스페겐지스

혹독한 재해와 차별로 고통 받는 갠지스강 유역의 사람들, 해외 소외이웃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합니다.

네팔 히말라야산맥에서 발원해 인도 동북부를 지나 방글라데시를 이어 흐르는 갠지스강은 생명을 살게 하는 어머니의 품이 되기도 하지만 매년 우기가 되면 이곳에 터 잡고 사는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파괴의 여신이 되기도 합니다. 갠지스강 유역에는 하루 소득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신분도 낮은 이들에게 이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극심해진 기후 변화 때문에 더욱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적 구호단체 영국의 옥스팜과 함께 아름다운 가게가 기후난민과 극빈층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아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립의 기회를 드리고, 지속가능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희망을 낳는 오리를 대출 받았어요

수혜자 나즈마 베크, 40세, 남편과 자녀 4명(2남 2녀)
지역 방글라데시 우타르 티라부니아

기후변화로 일년내내 흔들리는 일상을 살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홍수 대피소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넘치는 강물 때문에 다시 기후 난민이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저는 곡식을 일굴 만한 농토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도로 포장을 위한 진흙 채취 작업이 전부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남편은 일을 할 수 없기에, 여섯 가족의 생계는 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했어요. 더구나 기상예측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언제쯤 큰물이 올 것이다 하고 미리 짐작해서 대비할 수 있었던 홍수도 이제는 언제 닥칠지 몰라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심지어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운 이상 기후도 나타나고 있어요. 태풍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몰려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작물을 파괴합니다. 그런데도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언제 태풍이 강타할지 몰라 예전처럼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나마스페겐지스 프로젝트로 내일을 꿈꾸게 되다

저는 나마스페겐지스 프로젝트를 통해 꼭 필요한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임시 화장실과 우물이 생겨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대출받은 돈으로 오리를 샀어요. 잘 키우면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언제 홍수 때문에 쫓겨날지 몰라서 하루 하루가 실얼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집과 지속가능한 생계 지원을 받게 되어, 마음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 집과 키울 오리가 있어서 더없이 행복합니다.



“차별과 가난이라는 험한 강을 건너고 있어요

수혜자 수르자 데비, 남편과 자녀 4명(2남 2녀), 시댁식구 부양, 달리트(천민계층)
지역 네팔 다델두라주 시라디 마을

두 배의 차별로 두 배의 고통을 당하다

달리트(네팔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천민계층) 출신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천민계급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성이라 금지되는 수많은 차별들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벽돌 깨기 같은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종일 돌조각에 맞으며 힘들게 일해도 곡물 2kg 얻는 것조차 힘들어요. 식구들이 먹을 끼니를 만들 때조차 밀가루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달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삶도 비참합니다. 제 자식들은 3년 넘게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녔죠. 옷을 빨 비누도 살 수 없어서 세탁을 위해 흙과 'reetha'라는 작물을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인도로 이주 노동을 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게에서 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달리트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를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애원했어요. 만약 외상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당신들 밑에서 쟁기질이라도 하겠다고요.

나마스페겐지스 프로젝트로 희망의 씨앗을 심다

아름다운가게의 지원 덕분에 제가 서 있는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생강 씨앗을 받았습니다. 생강을 생산해서 옆 마을에도 팔아 그 돈으로 염소 헛간을 만들 수 있는 자분을 샀어요. 또한 푸드 바우처와 옥수수, 밀, 완두콩, 생강, 콩 등의 개량된 종자를 제공 받고 더 건강한 농작물을 더 많이 가꾸기 위해서, 앞선 농업 기술과 유기농 비료 제조방법도 교육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가게는 농업 생산량 향상을 도와주는 3개의 소규모 관개 시설을 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도 받았습니다. 이 중 한 마리가 두 마리의 새끼염소를 낳았습니다. 곧 이 염소들을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생활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아름다운가게에 감사 드립니다.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모여서
오지 마을에 행복을 밝히는 희망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네팔 오지마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네팔 오지 마을에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관 문화를 구축한 것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역 학교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구상, 운영,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 단순한 수혜를 넘어 다함께 만드는 아름다운도서관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010년 누와코트 지역에 1호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12년에는 벅슨과 함께 다델두라 지역에 2호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꺼일러리 지역에 3호와 4호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3번째 아름다운도서관은 아름다운가게 후원이사회에서 고택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5천 4백여 만원으로, 그리고 4번째 아름다운도서관은 패션매거진 싱글즈의 기부콘서트 및 바자회 수익금 7천여 만원으로 문을 열게됩니다. 아름다운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도서관마다 책 3천여 권을 포함해 전기시설, IT기기,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글짓기 대회와 같은 즐거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책 속에서 내일의 행복을 읽을 수 있어요

- 씨펠 구름, 3D Youth Club (지역 청년회) 부회장

아름다운가게가 심어 준 도서관이라는 작은 씨앗. 그것을 키우는 것은 저희 몫이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에 처음 커뮤니티 도서관을 세워준 아름다운가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회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 신축을 결정하였고, 정부에서는 땅을 제공해 주었지요. 풍족한 사람은 자재를 기부하고, 풍족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력을 기부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굿모닝베트남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들 꿈의 크기를 잴 수 없도록
소수민족을 위한 배움터를 짜고 배움터를 바로 세웁니다.

아름다운가게는 2007년부터 베트남 북부 산간 라오까이주 사파 및 시마카이 지역에서 옥스팜과 함께 소수민족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까이는 북부 베트남에 위치한 외딴 산간 지역으로 베트남 내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대부분이 소수민족 출신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꾸준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회, 교사 그리고 학생이 하나의 목표 아래 조화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별의 벽을 허물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돼요

- 란, 라오까이 지역 핀난 초등학교 교장

아동중심 교육으로 교실 가득 활기가 넘치다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으로 처음 아동중심 교육을 이 지역에 도입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교사들이 관련 교육트레이닝에 참여했고,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활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중심 교육 적용 전에는 어떻게 교실활동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기본 교수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지 미숙했죠. 교사들은 책에 있는 것만 평면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교사들은 수동적이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실활동, 롤플레이 등의 아동중심 교육을 적용하면서 교사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변신하다

아동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일정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노동력, 자재 등을 제공하여 정원 조성, 벽면 그림, 무대 설치 등 학교 외관을 더 예쁘게 만들었죠. 그 결과 학교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되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호 받고 있다는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학교가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더 좋은 바람

교장으로서 한 가지 바람은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학교,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교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지요. 바로 커뮤니티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해서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학교를 같이 변화시킬 때 지속 가능한 것이지요.

또 다른 바람은 우리 마을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그것을 넘어 대학까지 진학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20%에 불과하지만, 큰 포부를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까지 올라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깊이있는 배움의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서지역을 위한 나눔공연, 희망발전소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됩니다.
아름다운가게



나눔이 있는 가게
아름다운가게

기부자 이야기

데님아트 황인호 기부자
나눔콘서트 '희망발전소'
고운미소치과
동부어닝
놀라운가게

김동배의신만큼
기부금 투척!
참, 고맙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봉사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을 데님아트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 데님아트 황인호 기부자

아름다운가게 군포점에서 4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 청바지를 가까이 하면서 데님아트(청바지를 캔버스 삼아 먹으로 그림을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름다운가게에서 청바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돼 본격적으로 데님아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다양한 청바지를 직접 삽니다. 좋은 일도 하고 내 작업에 꼭 필요한 재료도 얻는 것이죠. 청바지는 세탁 후 캔버스에 붙이기 좋은 형태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캔버스에 붙여서 먹으로 그림을 그리죠. 청바지라는 서양의 것에 먹이라는 동양의 소재를 접목시키는 작업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제가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과 작품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요. 남을 위한 일이 곧 저를 위한 일이 되고 그것이 작품으로 판매돼 또 남을 돕는 것. 바로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작품 구매자의 이름으로 기부

제 작품은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쓰임새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누기 쉽게 책정하죠. 작품을 위한 재료비나 작업비가 1/3, 아름다운가게 기부금 1/3, 그리고 저의 꿈인데 데님 갤러리나 박물관 개설을 위한 기금으로 1/3을 적립하죠. 그리고 기부는 제 이름이 아니라 구매자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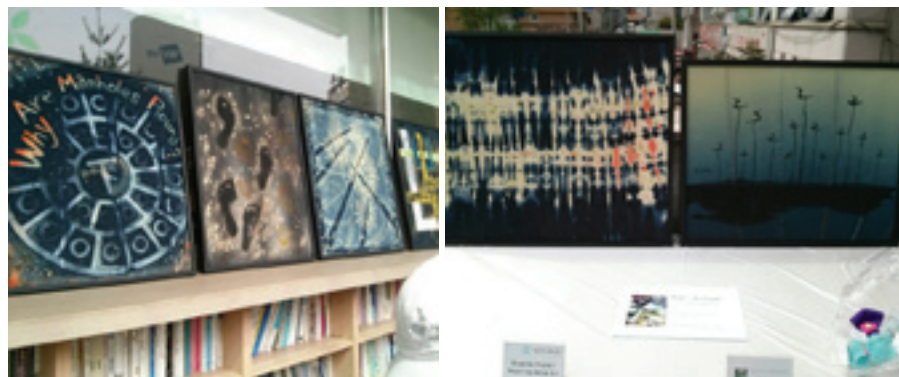
본인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전달하니까 작품을 구매해주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가게 프로그램 중에서 베트남 소수민족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번 그쪽으로 기부하고 있지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저의 영문명을 따서 '브라이언 호 프로젝트(Bryan Ho Projec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금도 꾸준히 적립해서 기부도 계속하고 박물관 건립도 꼭 하고 싶습니다.

기부자 프로필 황인호, 패션브랜드 브랜드 디렉터, 4년째 군포점에서 봉사활동 중

기부내용 자신의 데님아트(Bryan Ho Project) 작품 판매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품 구매자의 이름으로 아름다운가게 '굿모닝베트남'에 기부



“즐거움을 나누는 나눔 콘서트로 찌릿찌릿 희망이 전해져요

- 나눔콘서트 '희망발전소'

인디밴드 '전기뱀장어'를 비롯한 7개 인디밴드(가을방학, 게이트플라워즈, 눈뜨고 코베인, 몸과 마음, 이스턴사이드킥, 하현진X김간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콘서트 '희망발전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디밴드들은 희망발전소 콘서트의 수익금인 8백여 만원을 소외아동 정서지원을 위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였으며, 콘서트 당일 관객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120여 점을 아름다운가게 홍대점에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콘서트 이후 직접 홍대점을 찾아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나눔에 직접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노개런티로 뜻을 모은 인디밴드들

2012년 KT&G 상상마당에서 진행한 '밴드 인큐베이팅'에서 우수한 인디밴드 '전기뱀장어', 이 실력과 인디밴드가 짜릿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부상으로 받은 무료대관권을 나눔콘서트 개최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인디밴드들이 나눔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노개런티로 출연해 주었습니다.

콘서트 스케치

스탠딩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35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는 가운데 약 3시간 40분간 함께 뛰고 웃고 따라 부르며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 후에는 아름다운가게 소개 영상이 상영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번호표를 배부 받고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전기뱀장어 등 7팀의 인디밴드 팬들은 손수 챙겨온 의류, 책, 잡화 등 120여 점의 물품을 기증함에 담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기부한 인디밴드들과 이들의 아름다운 열정에 동참하기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한 팬들이 공유한 나눔바이러스는 아이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나눔을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기증자 분들에게는 희망발전소의 이름이 새겨진 배지를 선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으로

나눔콘서트 '희망발전소'는 대형 인기 가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콘서트 기부활동에 인디 밴드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눔콘서트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밴드의 멤버들 또한 콘서트 종료 후에도 직접 매장을 찾아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젊은 관객과 젊은 뮤지션들이 만나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작은 실천이 고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됩니다

- 고운미소치과

고운미소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과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선후배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치과 네트워크로서 2002년 8월 목동점을 시작으로 15개 지점, 의사 50여 명, 직원 250명의 규모인 고운미소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젊은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장점을 적극활용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신기술 도입으로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운미소의 사회적 의무를 열심히 하고자 지역사회 봉사, 기부와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봉투로 시작한 아름다운가게와의 인연

종이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일반 시민분들이 기증해주시는 종이봉투에 의존하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종이봉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가게에 꼭 필요한 종이봉투를 고운미소 네트워크가 2010년부터 매달 6,000장씩 수도권 매장에 기증하면서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나눔 실천 협약을 맺은 이후 고운미소 네트워크가 실천해 온 나눔은 종이봉투 기증으로 끝나지 않고, 고운미소치과 15개 모든 지점 내에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아름다운가게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를 통한 아름다운가게 홍보 등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커피를 구입하여 진료 대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소비 운동을 이끄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나눔활동 계획

2013년 첫 나눔 활동은 시민분들이 기증해 주신 소중한 물품들이 모이고, 기증해 주신 물품이 다시 가치를 가지고 쓰일 수 있도록 재생산되는 되살림터에서의 자원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독심 나눔장터 자원 봉사 활동 참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두터운 신뢰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고운미소 네트워크의 진료 철학이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종이봉투 기증 2010년~현재까지 약 19만 장, 약 4,600만 원
아름다운커피 구매 2010년~현재까지 약 330만 원



“매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편안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 동부어닝

동부어닝은 1982년도에 설립되어 4명 남짓한 규모로 옛날 전통방식의 천막을 제작하였습니다. 설립한지 벌써 32년째, 한 분야에 깊게 매진한 결과 동종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집으로 이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제품의 자체개발을 완료하고 다수의 실용시안과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노력, 정직과 신용을 회사이념으로 하는 동부어닝은 항상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장의 소중한 기증품을 지켜주는 기부

아름다운가게가 안국에 처음 문을 열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동부어닝 이종석 대표는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0년 아름다운가게 하남점 2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어닝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곧이어 관악자명점, 용담 되살림센터에도 어닝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 뒤 2010년 12월 14일 정식으로 동부어닝과 아름다운가게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나눔을 이제야 실천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를 찾는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종석 대표님의 협약식 기념사는 2013년인 지금까지 어닝기부로 계속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동부어닝의 아낌없는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가게를 찾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내용 어닝이란 매장 전면 외부에 설치하는 차양막으로 매장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며 눈과 비로부터 기증품을 보호함
동부어닝은 아름다운가게 매장 20곳에 무료로 어닝을 설치해주고 필요 시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고 있음

기부내역

2010년 : 하남점, 관악자명점, 되살림터

2011년 : 대구남산점, 강동고덕점, 개봉점, 광주역점, 여수둔덕점, 광양종마점, 사천점, 방학점, 서초점

2012년 : 군산명산점, 창원팔용점, 압구정점, 장한평점, 수원영통점

2013년 : 구미인동점, 포천점, 인천논현점

* 2010년~2012년 총 1,792만 원



놀라운가게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희망의 가게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갑니다.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카페, 병원, 식당, 학원, 빵집, 꽃집, 안경점
그리고 온라인샵 등 우리 주위의 작은 가게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수입의 1%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생각하는 등 작지만
소중한 손길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비와 따뜻한 인연이 함께
하는 곳, 여기는 놀라운가게입니다.



기부자 이야기_놀라운가게



“
카페 오픈과 함께
달콤한 기부를 시작했어요

- 놀라운가게_미세스 카카오 강은숙 사장님

카페를 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기부'였다는 사장님은 2011년 7월 미세스 카카오를 오픈한 뒤
놀라운가게가 되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은숙 사장님은 교회를 통한 캄보디아
우물설치사업 지원, 쇼콜라티에가 된 후로는 재능기부 강습 등으로 '기부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게명 미세스 카카오 (강은숙 사장님)

업종 카페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후원 네팔-방글라데시의 기후난민을 돕는 '나마스페겐지스'에 기부

2011년 미세스 카카오를 오픈하기 전부터 수제초콜릿을 만들어 아름다운가게 창원중앙점에 기증하곤 했음

판매 금액은 창원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



“
나는 기부를 가르치는
멋진 엄마예요

- 놀라운가게_휴니스 한지희 사장님

한지희 사장님은 어머니 친구분(아름다운가게 송파점 자원봉사자)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에 대해 알게
되었고, 크고 작은 바자회 때마다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외아동 정서지원 기부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따님도 기부가 생활이
되어버린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기부문화를 배워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게명 휴니스(한지희 사장님)

업종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쇼핑물

위치 온라인(www.huenis.com)

후원 국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정서치료와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소외아동정서지원'에 기부



▲ 강은숙 사장님의 미세스카카오 제품



▲ 한지희 사장님의 휴니스 제품

숫자로 본 연간나눔

빈곤소외계층 지원

공익활동 지원

현물나눔

공정무역, 국제개발, 긴급구호

사회적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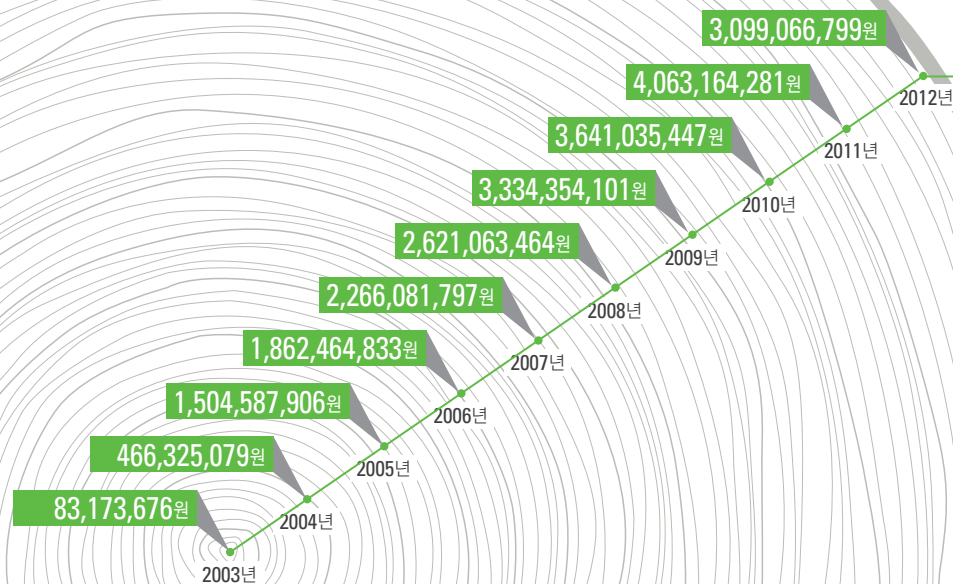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생활 속 나눔을 위한 우리의 실천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증물품, 공정무역제품, 재활용디자인제품 등의 매출과 기부금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 이웃과 건강한 미래 만들기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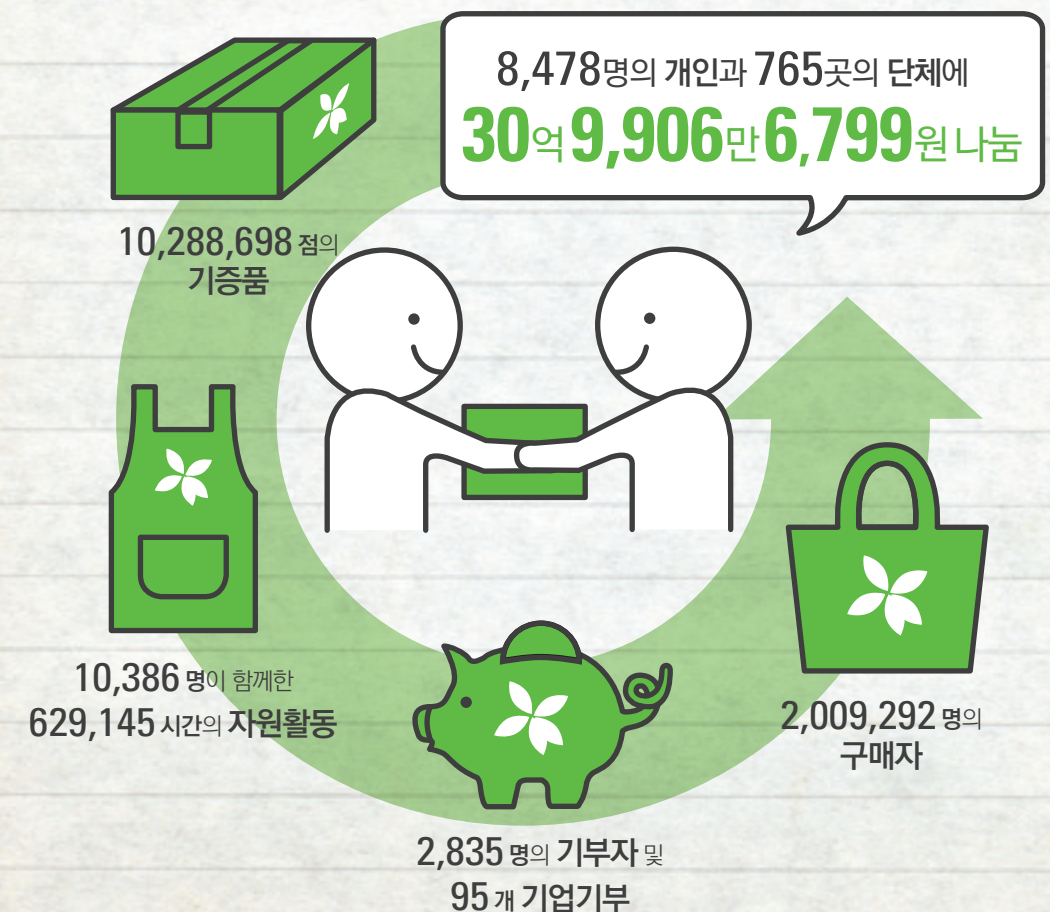
지난 10년 간 아름다운가게 나눔 누적 총액 (2003~2012년)

229억 4,131만 7,38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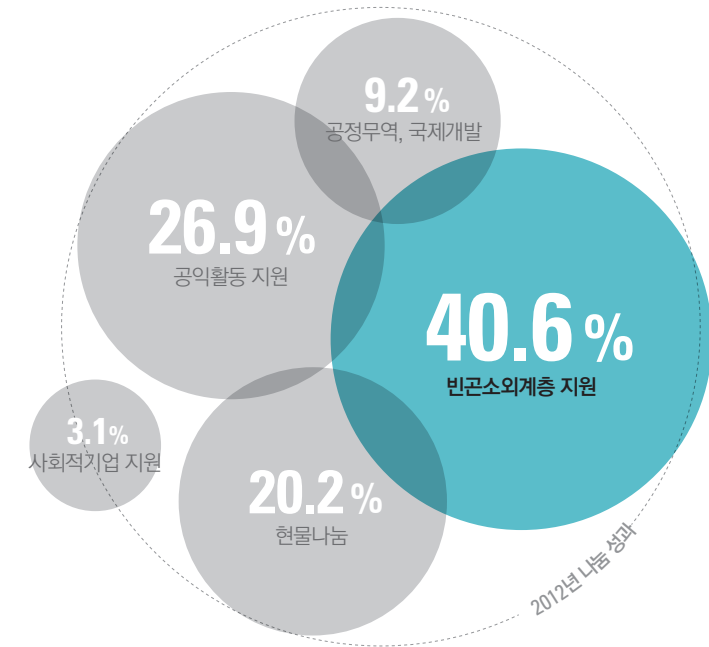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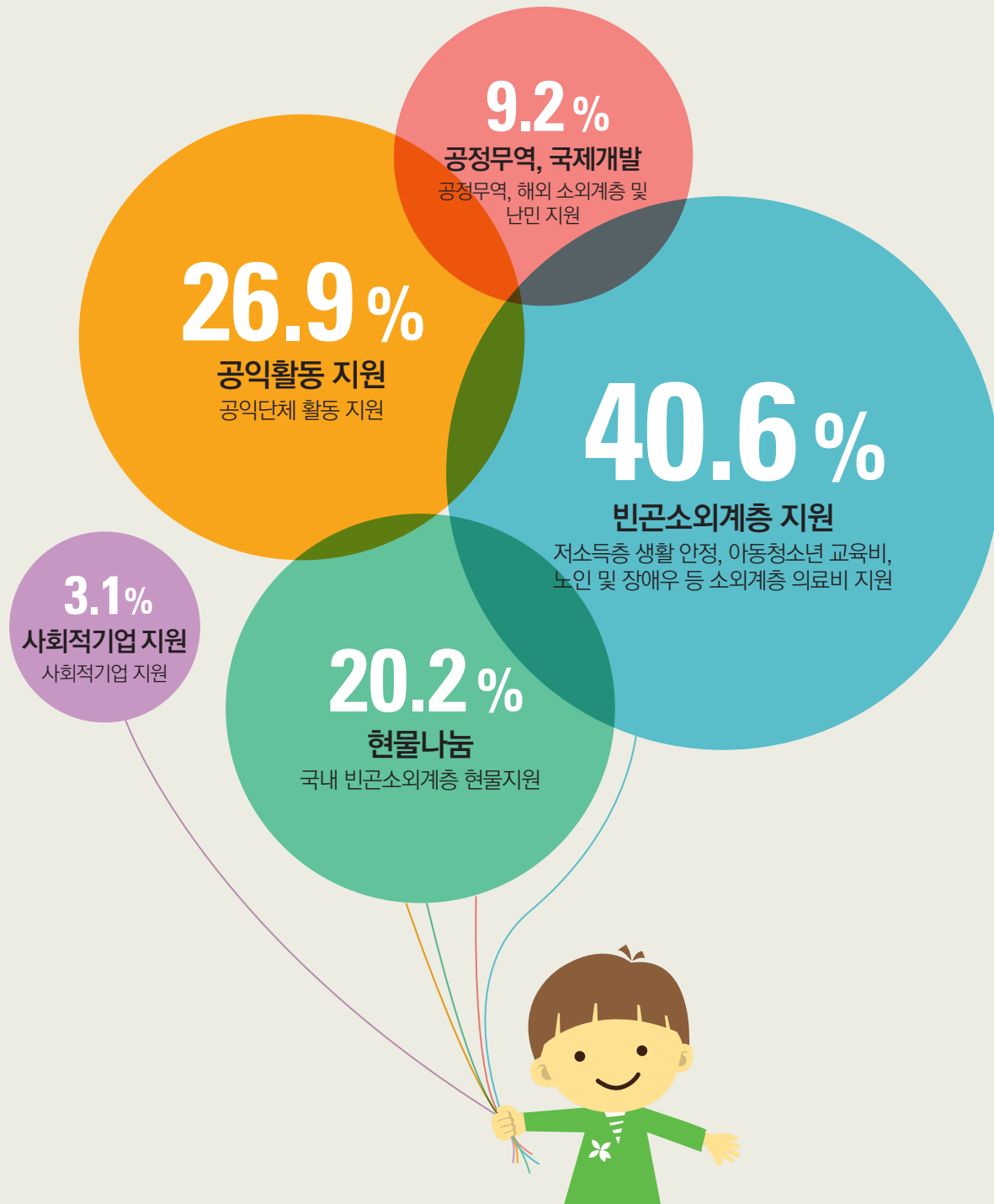


2012년 우리의 나눔은...

보고서 숫자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나요?
묵묵히 함께 땀 흘리고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여러분의 노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2012년 우리의 나눔은 **60만 시간**을 함께 해주신 **1만여 명**의 자원활동가,
1,000만여 점을 기증해주신 기증자, **2,800여 명**의 기부자 및 **95개** 기업기부,
그리고 **200만여 명**의 구매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한
가족들이 만든
2012년 나눔 성과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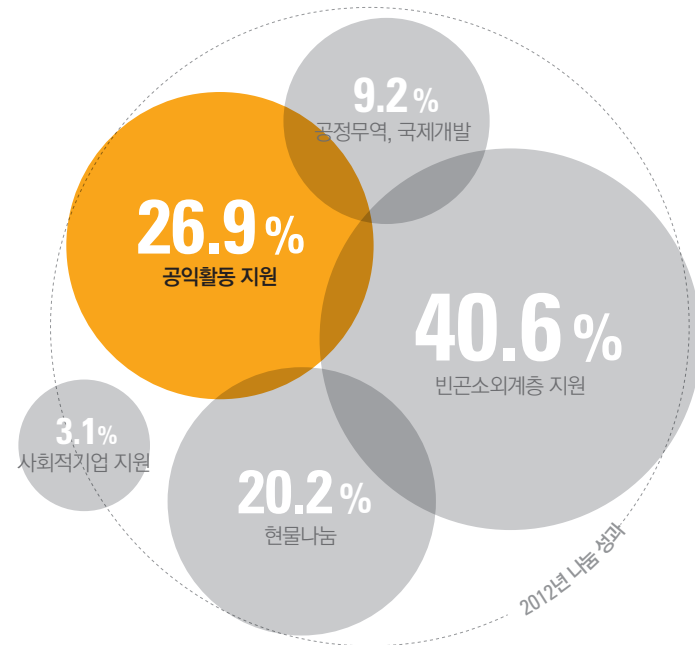


빈곤소외계층 지원

아름다운가게 정기수익나눔, 파트너 단체와의 행사수익금, 나눔장터 및 테마매장 운영, 기업 기금 및 개인지정 기부금 등을 통해 빈곤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비,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12억 6,003만 5,396원

희망나누기 (서울 및 경기 일부)	소외아동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5억 7,010만 6,252원
희망나누기 (지역-개인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학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지원	2억 5,358만 1,631원
매장행사배분 개인지원	파트너 단체와 일일행사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개인 지원	2억 687만 2,025원
장터배분 (병아리떼 쫓쫓쫓, 위아자, 독섬)	장애아동지원 및 소외아동 방학중 급식, 독서문화 지원	1억 2,272만 9,028원
기금배분	소외아동 체육활동 및 환아정서지원	5,766만 9,260원
테마매장 (개봉점)	청소년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3,317만 6,800원
지정기부배분 개인지원	기부자 지정영역 (저소득 개인)지원	1,590만 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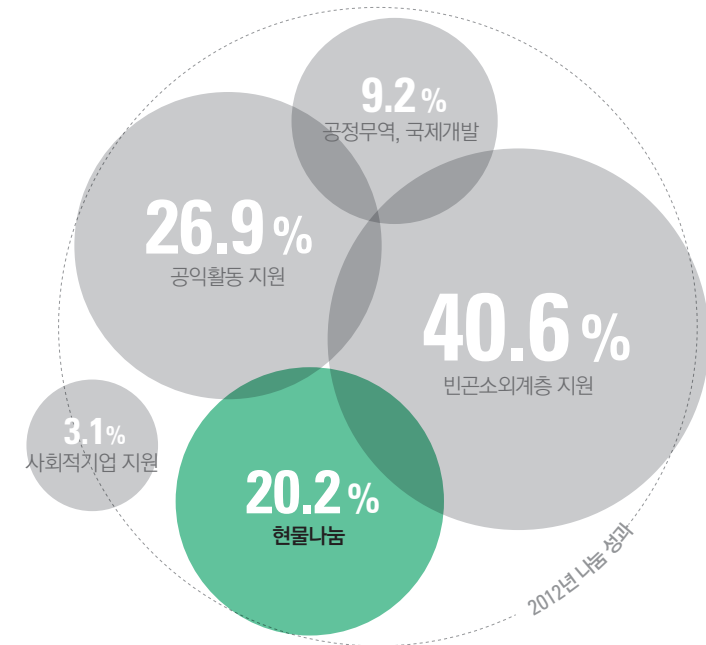


공익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노인 및 다문화관련 단체, 풀뿌리 단체 등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소외이웃들이 가까운 단체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8억 3,297만 3,969원

희망나누기 (지역-단체지원)	지역 내 공익단체 프로그램 지원	4억 4,916만 3,442원
매장행사배분 단체지원	파트너 단체와 일일행사를 통해 지역 내 공익단체 프로그램 지원	1억 9,003만 3,498원
테마매장 (삼선교, 논현, 책방 등)	매장기부자 지정영역 지원	1억 3,795만 8,009원
지정기부배분 단체지원	기부자 지정영역 (공익단체)지원	5,581만 9,0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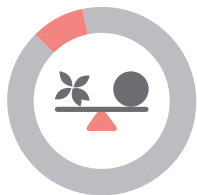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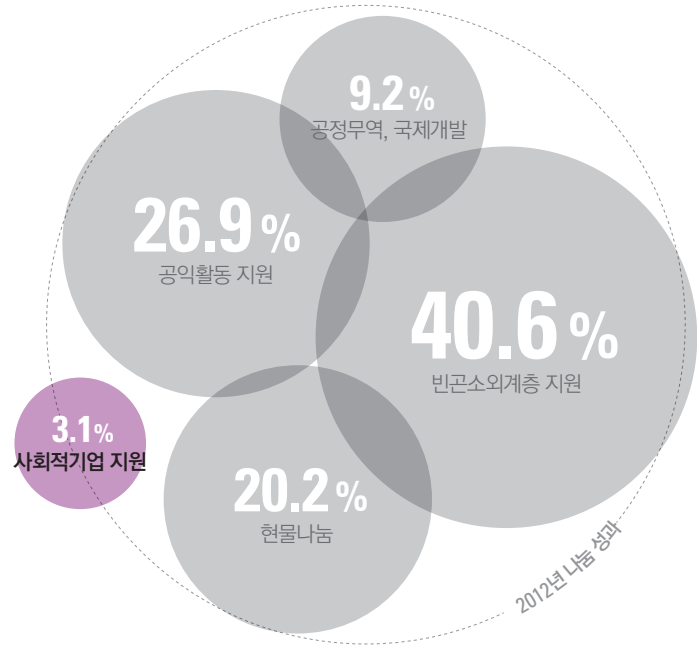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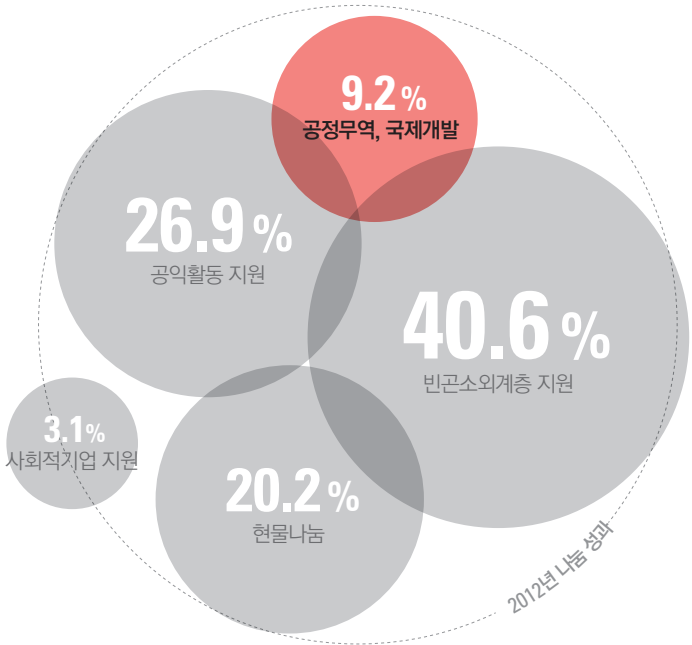
현물나눔

설날을 맞아 생필품과 쌀을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 등과 같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전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을 체험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6억 2,464만 560원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독거 / 조손가정 생필품지원	3억 1,686만 7,225원
문화/재사용/지정현물배분	소외계층 및 공익단체에 물품 및 문화공연 지원	3억 777만 3,335원





공정무역, 국제개발

국내 뿐만 아니라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빈곤국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기후난민,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인도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생산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억 8,418만 878원

굿모닝베트남	해외 소수민족 아동 교육 지원	9,364만 3,483원
나마스떼갠지스	해외 기후난민 및 빈민층 자립 지원	8,653만 7,500원
공정무역생산자지원	공정무역을 통한 생산자 자립 지원	7,354만 6,483원
아름다운도서관	저개발국 자립형 커뮤니티 도서관 지원	2,802만 3,412원
해외 현물지원	빈곤계층 및 단체에 물품 지원	243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제2, 제3의 아름다운가게가 탄생하여 더 놀라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해 지원합니다.

9,723만 5,996원

뷰티풀펠로우	예비 사회적기업가 지원	9,723만 5,996원
--------	--------------	---------------



아름다운가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대 멘토 100인의 응원 메시지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종로 광화문에서 명사 100인이 전하는 응원메시지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품은 명사 100명이 전하는 특별한 응원메시지를 친환경 목재 안마기인 타피(Tapi)에 명사의 자필을 그대로 각인해 제작되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패션디자이너 등 각계 각층의 명사 100인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전시품 판매 및 경매를 통해 1,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부금은 국내 소외아동 정서치료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012.3.7~3.18



2012 활동천사 캠프

전국에서 모인 1,200여 명의 활동천사와 함께 하는 '2012 활동천사 캠프'가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현황 보고를 비롯해 함께 즐기는 운동회, 장기자랑, 대동제 등 활동천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2.8.26~8.27



3기 이사회 구성

이사 12인과 감사 2인 총 14인으로 3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홍명희 이사장과 이기대 상임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2.6.25

10주년 감사 헌정식

아름다운가게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 아름다운가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을 위한 감사 헌정식이 장한평 아름다운가게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장기자원봉사, 개인 기증 및 기부, 기업 기부,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운가게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감사 인사로 드렸습니다.

2012.10.9



뷰티풀펠로우 2기 협약식

제2의 아름다운가게를 꿈꾸는 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기 선발이 완료되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2기 펠로우는 총 4명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이웃과의 교류를 위해 가족 놀이터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한 박정미 대표,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광고를 제작해 주는 사업 모델을 제시한 박정화 대표, 20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유덕수 대표, 고학력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한 특화출판시스템사업을 제시한유정호대표 등입니다.

2012.5.21



LA 매장 개점

아름다운가게의 첫 해외 매장이 미국 LA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LA에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문을 열게 된 데에는 한인 교민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2011년부터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교민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가게를 LA에 유치하자는 의견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아름다운가게 LA매장의 운영수익금은 국내 매장의 운영방침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중심으로 한 LA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돌아갑니다.

2012.9.6



꿈돌음 대회

아름다운가게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꿈돌음대회가 경기도 안성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 활동가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열린 토론회로 아름다운가게의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12.11.18~11.19



10주년 기념식

아름다운가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장기 자원봉사자, 기증자, 기관 및 기업 파트너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윤보선 고택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12.10.17



10주년 기념 거리 축제

더 많은 시민들과 아름다운가게의 10년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안국동 일대에서 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기증품 중 판매가 어려운 의류 및 잡화 조각을 시민들이 직접 이어 붙여 만든 '나눔콜라주'를 비롯해 다양한 거리공연과 퍼레이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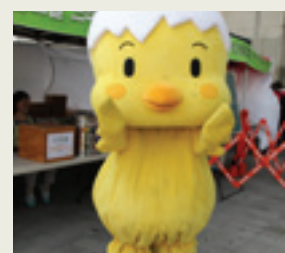
2013



2013.2.3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열번째를 맞는 아름다운나눔보따리가전국 29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총 3천5백 가구에 쌀과 생필품을 담은 나눔보따리를 배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눔보따리를 배달하는 '두벅이 배달천사' 22개팀이 참여해 더욱 자리를 빛냈습니다.



병아리떼 쫓쫓쫓

병아리떼 쫓쫓쫓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19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서로 사고 팔며 경제에 대해 배우고,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놀이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3.5.5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2호 개관

두 번째 아름다운도서관이 네팔 다델두라 지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위해 참여한 넉슨은 직접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개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학습용 컴퓨터, 운동용품, 그리고 도서 3천여 권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2012.11.30

아름다운가게 소식



매장 이전개점

울산중구점 2012.2.1

울산 중구 학산동 3-31번지
052-287-1365

강서화곡점 (舊 강서등촌점) 2012.6.2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32-17 1층
02-2695-1004

부천중동점 (舊 부천원미점) 2012.6.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 이안더클래식 1층
032-654-7497

광주운천점 (舊 광주쌍촌점) 2012.9.21

광주 서구 쌍촌동 885-11번지 금호베어스타운 1층
062-383-8975

제천남현점 (舊 제천중앙로점) 2012.10.12

충북 제천시 남현동 683번지
043-653-5004

대전중리점 (舊 대전대동점) 2013.2.14

대전 대덕구 중리동 189-1 1층
042-224-7004

포천점 2013.3.7

경기 포천시 신읍동 202-18
031-535-7799

인천논현점 (舊 부천투나점) 2013.3.22

인천 남동구 논현동 614-1
032-439-1113

익산부송점 (舊 익산영등점) 2013.5.30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상가 1호
(내 부송주공 1차 상가 지하)
063-832-1155

매장 신규개점

이태원책방 2012.1.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28번지 안성타워 306호
02-794-7004

여수학동점 2012.4.3

전남 여수시 학동 50-2번지 파리바게트 2층
061-685-8975

서울랜드점 2012.4.21

경기 과천시 막계동 서울랜드 내 제1전시관 정문부근
02-502-5588

의정부 신곡점 2012.5.24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720-5 1층
031-826-1188

대전지족점 2012.6.9

대전 유성구 지족동 985-2
042-823-6181

군산나운점 2012.7.14

전북 군산시 나운동 50-3번지
063-468-1201

송내책방 2012.8.1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건프라자 2층
032-325-1012

영등포점 2012.10.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31번지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내)
02-2069-1002

서귀포점 2012.11.16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10-3 1층
064-762-0098

울산북구점 2013.5.1

울산 북구 호계동 833-6번지 1층
052-295-1365

서울랜드점
영등포점
서귀포점
제천남현점
이태원책방
(좌→우 순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



하나,
아름다운가게에
기증 하기!



둘,
아름다운가게에서
구매 하기!



셋,
아름다운가게에서
자원활동 하기!



아름다운가게 홍보대사 방송인 이금희



아름다운가게는 이런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물품의 재사용으로 자원을 순환시키고, 기증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소중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풀뿌리단체를 지원하는 친환경 나눔가게입니다.

기증 및 자원활동 문의 국번없이 **1577-1113** www.beautifulstore.org

